

碩士學位請求論文

指導教授 李昌九

에스닉 스타일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thnic style applied art make-up work

2002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金 聖 熙

碩士學位請求論文
指導教授 李昌九

에스닉 스타일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thnic style applied art make-up work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金 聖 熙

金聖熙의 藝術學碩士學位論文을 認定함

2002年 12月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며 그 시대의 미에 대한 현실을 반영해 주는 메이크업을 지역적 특성과 에스닉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예술적 이미지 표현의 한 형태인 아트 메이크업으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에스닉 메이크업이 지역별로 나타나는 형태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역사적인 운명과 문화적인 배경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회 공동체의 대다수 구성원들에 의해 민속집단의 독자성을 표현한 것으로, 모든 대륙의 민족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장식하고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속적이고 토속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에스닉 스타일은 원시성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타문화를 재평가하려는 것으로의 가치관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현대 패션의 테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뷰티 메이크업은 그 시대가 추구하는 미인형에 맞도록 얼굴을 보다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스닉 메이크업은 독창적 예술적 표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를 조형적 측면으로 분석한 결과 세계의 다양한 민속적 취향을 받아들여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형의 미를 살렸고, 원시적인 색채의 사용과 더불어 현대적 감각에 맞게 질감을 강조하였으며, 민속적인 패턴을 응용한 디테일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감각으로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에스닉 스타일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표현력 그리고 독특한 조

형미는 예술적 이미지 디자인의 모티브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아트 메이크업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에스닉 스타일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을 통해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일반적인 형식이나 개념에 얽매임 없는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정신이 메이크업의 외적 표현인 부수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에서 벗어나 하나의 예술적 이미지로 확대되어갈 것으로 생각된다.

目 次

국문 초록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에스닉 스타일의 이론적 배경	3
1. 에스닉 스타일의 개념	3
2. 에스닉 메이크업	5
3. 에스닉 스타일의 사회적·문화적 배경	6
(1) 사회적 배경	6
(2) 문화적 배경	7
III. 메이크업에 표현된 에스닉 스타일 분석	10
1. 에스닉 메이크업 지역적 특성	10
(1) 아시아	10
(2) 아프리카	14
(3) 아메리카	17
(4) 오세아니아	18
2.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에스닉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	21
(1) 형	21
(2) 색채	27
(3) 질감	29
(4) 디테일	32

IV. 에스닉 스타일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 제작	39
1. 제작 의도	39
2. 제작 방법	40
3. 작품 및 해설	41
V. 결 론	51
參 考 文 獻	54
ABSTRACT	57

그림 目次

〈그림 I- 1〉	목각인형의 연지곤지	12
〈그림 I- 2〉	일본의 문신	12
〈그림 I- 3〉	치혹	12
〈그림 I- 4〉	인도의 헤너	14
〈그림 I- 5〉	인도의 눈화장	14
〈그림 I- 6〉	아프리카의 빨간색 신체채색	15
〈그림 I- 7〉	아프리카의 흰색 신체채색	15
〈그림 I- 8〉	아프리카의 문신	16
〈그림 I- 9〉	아프리카의 상흔	16
〈그림 I-10〉	아메리카의 얼굴장식	18
〈그림 I-11〉	아메리카의 신체 채색	18
〈그림 I-12〉	오세아니아의 신체 장식	19
〈그림 I-13〉	오세아니아의 얼굴 채색	19
〈그림 I-14〉	오세아니아의 문신	20
〈그림 II- 1〉	단일 점	22
〈그림 II- 2〉	점 패턴	22
〈그림 II- 3〉	눈썹 선 강조	23
〈그림 II- 4〉	눈썹 선 응용	23
〈그림 II- 5〉	비대칭 아이라인	24
〈그림 II- 6〉	동양적인 눈썹 선	24
〈그림 II- 7〉	아이샤도우 응용	25
〈그림 II- 8〉	블러셔 응용	25

〈그림 II- 9〉	아메리카 인디언 이미지	26
〈그림 II-10〉	아프리카 신체 채색의 응용	26
〈그림 II-11〉	아메리카 인디언 채색의 응용	27
〈그림 II-12〉	아메리카 인디언 M/U의 응용	27
〈그림 II-13〉	흰색과 검은색을 응용한 메이크업	28
〈그림 II-14〉	동양풍 이미지가 강한 메이크업	28
〈그림 II-15〉	골드칼라의 화려한 이미지	29
〈그림 II-16〉	빨간색의 강렬한 이미지	29
〈그림 II-17〉	매트	30
〈그림 II-18〉	글로시	30
〈그림 II-19〉	필	31
〈그림 II-20〉	메탈리프	31
〈그림 II-21〉	비닐을 사용한 독특한 질감	31
〈그림 II-22〉	연지의 응용	32
〈그림 II-23〉	팻취의 응용	32
〈그림 II-24〉	립스틱을 종이로 응용	33
〈그림 II-25〉	채색의 효과를 종이로 응용	33
〈그림 II-26〉	눈썹 응용 I	34
〈그림 II-27〉	눈썹 응용 II	34
〈그림 II-28〉	피어싱과 타투 응용	35
〈그림 II-29〉	피어싱 응용	35
〈그림 II-30〉	타투 응용	36
〈그림 II-31〉	신체 채색 응용 I	36
〈그림 II-32〉	신체 채색 응용 II	37
〈그림 II-33〉	신체 채색 응용 III	37

〈그림 Ⅱ-34〉 신체 채색 응용 Ⅳ	38
〈그림 Ⅱ-35〉 현대적인 문신	38
〈그림 Ⅲ- 1〉 작품 Ⅰ의 사진	42
〈그림 Ⅲ- 2〉 작품 Ⅱ의 사진	44
〈그림 Ⅲ- 3〉 작품 Ⅲ의 사진	46
〈그림 Ⅲ- 4〉 작품 Ⅳ의 사진	48
〈그림 Ⅲ- 5〉 작품 Ⅴ의 사진	50

I . 서 론

1. 연구 목적

메이크업은 종교·정치·경제·사상·철학·풍습 등의 사회적 조건과 민족의 피부색·기후·풍토 등의 자연 조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즉,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가지 방법으로서 메이크업은 그 시대와 지역의 문화를 반영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에스닉 메이크업은 각 민족의 생활 풍속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여러 민족의 구성원들은 민족이 처한 각각의 사회 환경에 알맞은 문화를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문화는 해당 민족 구성원들이 외형적 형태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민족에게 생활의 계속 또는 반복에서 이룩되어 전승되어온 민간 공통의 습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에스닉 메이크업을 연구하는 것은 각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는 한 방편이 된다. 문화의 방식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메이크업은 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메이크업은 그들 자신의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에스닉 메이크업이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민족의 전통 화장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하며, 에스닉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에스닉 메이크업이 현대 메이크업에 어떻게 응용되었는가를 분석함으로서 민족의 전통 화장 문화를 변형하여 예술적 이미지 표현의 한 형태로 아트 메이크업 작품을 통해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메이크업은 인류문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타인에게 미적 가치를 부여할 미의 위엄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가면이나 나체 상태에서 피부를 채색하거나 조각, 문신을 새기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메이크업은 각 나라마다 시대에 따른 미에 대한 기준을 반영하며, 복식의 조형적 특성에 따라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 완성된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토탈 패션의 경향을 띄며 변화하였다.

에스닉 메이크업은 독특한 민속 고유의 특이한 개성을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패션의 한 취향으로서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감각으로 창조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 연구 논문과 에스닉 스타일과 관련된 문헌 자료를 참고하여 에스닉 스타일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메이크업에 표현된 에스닉 스타일 분석은 관련 단행본 문헌 자료, 관련 전문 정기 간행물 자료로 에스닉 메이크업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패션 잡지에 실린 디자이너의 작품 사진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에스닉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에스닉 스타일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 제작은 위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각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민족 전통 화장인 채색과 문신, 상흔을 다양한 색감과 형태, 질감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오브제를 사용하여 예술성 있는 아트 메이크업으로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Ⅱ. 에스닉 스타일의 이론적 배경

1. 에스닉 스타일의 개념

에스닉(Ethnic)이라는 말은 ‘민속¹⁾적’이라는 말이다. 민간에 전승된 문화적 잔존물을 총칭하는 민속이란 민간전승·관습·민속예술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한 사회의 문화·관습·종교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민간에 전승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²⁾

따라서 에스닉 스타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민속적이고 토속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민속의상 그 자체와 염색·직물·자수 등에서 힌트를 얻어 소박한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역사적인 운명과 문화적인 배경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회 공동체의 대다수 구성원들에 의해 민속 집단의 독자성을 표현한 것이다.

에스닉 스타일은 민족 특유의 풍속·풍습·형태·소재·기술 등을 나타내고 특정 공동 사회 집단의 풍습 또는 풍속을 통하여 형성된 그 공동 사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방, 그리고 공동 사회 구성원의 신분과 직업 등의 특색이 부각되고 그들 공동 사회에 대한 향토 의식과 신분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한 것으로서 그들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 민속의상과 민속 고유의 염색·직물·자수·액세서리 등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것으로 종교적 의미가 가미된 토속적이며 소박한 느낌을 주는 패션이다.

1) 민속 : 민간의 생활인 동시에 생활의 계속 또는 반복에서 이룩되어 전승되는 민간공통의 습속으로 인간이 자기가 속한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하여 지혜와 신앙으로 엮어낸 생활풍속.

2) 윤희정, 「20세기 의상디자인에 나타난 민속풍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4.

이러한 패션은 민속집단의 독자성을 외계에 나타내주는 것이며, 현대 패션에 좋은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어 다양한 민속의상들이 현대 패션에 새로운 패션 테마로 등장하였는데, 자문화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타문화를 재평가하려는 것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에스닉은 처음에는 다른 문화권에 대한 호기심과 다른 인종에 대한 매력을 탐구하는 서구인의 반향적인 스타일이었다.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에스닉 스타일은 인위적이며 구조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것에 기본을 둔 원시성의 추구에 대한 향수라고 할 수 있다.

에스닉이란 말이 패션 트렌드에 처음 소개된 것은 89년 봄 프리미에르 비죤(Premiere Vision)에서였다. 그후 90년대 전반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기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민속 의상들이 등장하였고, 서구 패션에 민속 의상을 모티브로 한 민속적 요소가 많이 등장하였다.³⁾

에스닉 스타일의 의상은 민속의상 그 자체와 염색·직물·자수 등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것으로 1906년 뿔 뿌아레(Paul Poiret)가 기모노 소매의 코트와 터번, 하렘 팬츠를 이용한 오리엔탈 무드를 발표한 것과 1967년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이 아프리카 드레스를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오프꾸뛰르(Haute-Couture)에 본격적으로 나타났으며, 1980년 후반기 이후부터 각 문화권마다 다른 민속 의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현대 패션의 패션 테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⁴⁾

3) 전영주,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인도 민속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p.42.

4) 정인자, 「다카다 겐조의 작품에 관한 연구」, 『복식』 제21호, 한국복식학회, p.208-209.

2. 에스닉 메이크업

인류문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타인에게 미적 가치를 부여할 미의 위엄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초기 메이크업(Make-up)이라고 할 수 있는 가면이나 나체상태에서 피부에 채색을 하거나 조각, 문신을 새기게 되었다.⁵⁾

이것은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한 미적인 성적본능 뿐 아니라 질병이나 악귀로부터 보호를 위한 종교적·주술적 수단 및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 소속집단 등을 표시하기 위한 신분·종족구분의 수단으로, 또는 신체 보호나 보온을 위한 실용적 수단으로서 메이크업을 하였다.

이러한 원시적 방법의 장식은 모든 대륙의 민족들이 그들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장식하고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따랐다는 것은 벽화나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단순한 얼굴채색으로부터 시작된 신체장식 행위는 부족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등 강한 장식욕은 화장으로 나타났고, 미개민족이 얼굴과 몸에 문신(tattoo)⁶⁾과 상흔(scar)⁷⁾을 함으로서 신분의 상징과 성인 의식의 형태로 아프리카에서는 아직까지 행하여진다고 한다.

이렇게 시작된 메이크업은 시대에 따라 미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며, 복식의 조형적 특성에 따라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 완성된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토탈 패션의 경향을 띄며 변화하였다.

에스닉 메이크업은 고대 문명이 기원을 이루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원초적인 것, 비유럽적인 것의 동경, 서양인들이 체험하지 못한 동양권 민속 문화

5) 이학재, 『분장의 길』, 서울, 자유문화사, 1994, p.25.

6) 문신(tattoo) : 피부나 피하조직에 상처를 내고 물감을 들여 글씨·그림·무늬 등을 새기는 것.

7) 상흔(scar) : 살을 베어 상처를 낸 다음 상처 안에 모래나 각종 식물의 과즙으로 문질러 아물 때까지 두어 흉터를 만드는 것.

에 대한 호기심 등에서 세계 다양한 민속적 취향을 받아들여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는 초월적 감성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것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민속적 유산의 재해석을 통해 여과되어 새로운 감각으로 창조되는 것으로 독특한 민속 고유의 특이한 개성이 보편성을 띠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패션의 한 취향으로 제시하는 것이다.⁸⁾

3. 에스닉 스타일의 사회적·문화적 배경

패션은 문화·사회·정치·경제·기술 등의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것으로 최근 다양하게 표현된 에스닉 스타일도 이러한 시대적·문화적 배경과 상호 영향하에서 특징적인 패션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사회적 배경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무절제한 생산활동과 맹목적인 소비활동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과학과 기술이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원인으로 보게 되자, 인간 환경 문제가 전세계의 관심이 되었고,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걸쳐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강화되면서 모피의류에 대한 자제와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나타낸다.⁹⁾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패션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자연보호운동의 확산 등 자연을 소재로 한 직물·스타일·분위기의 경향을 유

8) 최은지, 「아방가르드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p.58.

9) 이은영, 『패션마케팅』, 서울, 교문사, 1992, p.47-48.

행시켜 인공적 행위에 대한 오염된 환경을 거부하고, 훼손되지 않는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욕구를 표현해주는 오리엔탈 스타일(Oriental Style)¹⁰⁾, 이그조틱 스타일(Exotic Style)¹¹⁾, 트로피컬 스타일(Tropical Style)¹²⁾과 포크로어 스타일(Folklore Style)¹³⁾을 포함하기도 하는 에스닉 스타일의 패션 트렌드들이 1980년대 말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로 인하여 인위적이며 구조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것에 기본을 둔 동양이나 아프리카의 때묻지 않은 원시성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직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의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의 자유 분방, 단순함과 구속에서 벗어난 생활 속에서 창조된 자연스럽고 토속적인 것은 깨끗한 물·맑은 공기·기름진 땅이 있는 지구에서 안락하고 정결한 삶을 누리 고 싶은 욕구를 표현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¹⁴⁾

(2) 문화적 배경

문화는 한 인간집단의 생활양식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공유되고 축적되어져 전체를 이루고 항상 변화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복식은 인간의 형태, 특히 문화라고 불리어지는 형식화된 형태에 관심을 가

10) 오리엔탈 스타일(Oriental Style) : '동방의, 동양문양의, 동양식의'라는 의미이며 아시아의 민족적 스타일 또는 오리엔탈리즘 사상이 나타나는 시각적 표현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스타일이다.

11) 이그조틱 스타일(Exotic Style) : '이국풍, 이국 정서'라는 뜻으로 외국 풍습이 복장에 도입되어 창작되거나 의복에 이국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낯설고 색다른 멋을 추구하는 감성 이미지를 말한다.

12) 트로피컬 스타일(Tropical Style) : 열대지방의 민속 의상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패션이다.

13) 포클로어 스타일(Folklore Style) : 유럽의 농민, 인디언 의상 등 대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갖는 소박하고 전원적인 이미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표현한 패션이다.

14) 전영주, 앞의 논문, p.42.

지는 문화적 측면에서 한 시대의 생활상과 사회상, 문화적 양식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된 예술적 양식을 반영한다.

복식문화는 미의 유형, 기술, 도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의복의 미적 유형은 문화의 기초와 가치관을 반영하며 복식의 상징들을 통한 미적 표현은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나타낸다.¹⁵⁾

민속복식은 과거에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그 문화권 내에서만 전통적 민속복식으로 착용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원형 그대로를 재현하지 않고도 그 특색의 일부를 살려 그 복식의 기본 성격을 나타내주는 이른바 ‘유형전승’을 이름으로써 민속복식의 명맥이 현대의 일상복까지 침투된 예가 아주 많다.

그 예로서 중국의 차이나 칼라, 인도의 사리, 터어키의 하렘팬츠, 일본의 기모노 소매 등이며 이들은 오늘날의 현대화,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에스닉풍 복식의 일부로서 그 유형이 전승되고 있다.¹⁶⁾

그러므로 타문화권에서의 각각의 민족적 요소와 민속복식은 다른 문화에 대한 접촉과 교류로 인해 고대와 현대사회 뿐 아니라 동양과 서양간의 복식문화간에 차이점과 관련성을 규명할 수 있다.

인류의 원초적인 삶이 짙게 표현되는 에스닉 스타일의 유행경향 역시 자문화 중심의 사고에서 타문화를 재평가하려는 것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유럽 문명세계의 동경은 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원시문명에 대한 적극적인 학문적 연구로 이어졌고, 나아가 단순한 자연 상태의 삶에 대한 욕구를 불러 일으켰다.

서구 문화의 국제적인 지배로 인한 국제화된 모더니즘으로 인해 무시되어

15) Marily J.Horn, Lois M.Guel, 『The Second Skin』, Houghton Milfflin Company, 1981, p.51.

16) 이정아, 「현대 여성 복식에 표현된 에스닉풍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p.6.

왔던 민속복이나 소외된 지역의 다양한 문화들의 토착적이고 민속적인 요소의 도입과 절충을 통해 신비적이며 고유한 이미지를 존중하는 원시성과 인간 본능에 대한 관심을 복식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다.¹⁷⁾

이중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의 복식 문화에 영향을 받은 에스닉 스타일은 후기산업시대, 정보시대에 적합한 패션의 주제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문화와 문물의 신속한 교류가 활발한 현대사회에선 여러 복합적인 사회환경의 영향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에스닉 스타일이 유행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1995, p.269.

Ⅲ. 메이크업에 표현된 에스닉 스타일 분석

1. 에스닉 메이크업 지역적 특성

인간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기본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장식의 행위가 있어왔다.

미의식은 시공의 차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신체에 행하는 장식인 메이크업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영향을 받아 생활양식과 어우러져 발전되었다.

메이크업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을 포함한 생활양식 이외에도 미의 개념이나 종교적 이념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는데, 여러 문화권에서 종교적 이념과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도덕 관념 등에 영향을 미쳐 복식과 함께 메이크업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¹⁸⁾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메리카 각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메이크업을 비교해 봄으로서 생활양식, 미의 개념, 종교적 이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메이크업의 형태, 색상을 지역적 특성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아시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을 가진 아시아는 오랜 옛날부터 문명이 발생한 곳이기 때문에 각국의 자연, 생활 등에 큰 차이가 있어 메이크업의 형태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아시아 중에서도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정치·종교·문화 등 다방면에

18) 이은영, 앞의 책, p.30.

서 큰 영향권내에 있는 한국·일본·중국의 대표적인 화장법과 동양의 사상과 철학의 원류로서 일찍이 서구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인도의 화장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일본·중국의 초기 화장 유형으로는 신체 채색, 문신(文身), 치흑(齒黑)이 대표적이었다.

신체 채색은 주술과 장식적인 목적을 가진 붉은 색이 주로 행하여 졌었다. 붉은색은 모든 색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태양의 색, 피의 색, 신성한 색으로 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었고, 한국·일본·중국의 가면에 사용된 색으로 민간 신앙적인 면에서 쓰였는데, 가면이나 얼굴에 색을 입히는 행위에 영적인 힘이나 초자연적인 힘으로부터 얼굴을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원시단계에서 사람들은 흙이나 그을음, 돌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사용하는 등 신체 채색용의 원료를 자연물에서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I-1>

신체 채색은 씻으면 지워진다는 단점이 있어, 영구적으로 씻기지 않는 것을 생각하여 피부에 바늘로 찔러서 먹물이나 물감 따위로 글씨나 그림 혹은 무늬 등을 들이는 것으로 문신을 고안하였다.

문신은 약 3000년경 전에 중국에서 행하여졌고 그 후 일본에 전파되어 성행하였고, 초기에는 어로와 수렵 등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술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가 차츰 장식적인 목적이 강해졌었다. 한국 남부 해안지방에서 문신을 행하였다는 사실은 지리적 여건상 일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그림 I-2>

치흑은 일본에서 주로 행하여진 것으로 미적인 표현 이외에 충치를 예방하거나 치아를 물들이는 성분에 철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좋다는 기능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었는데, 고대에서뿐만 아니라 문신과 함께 후대에까지 꽤 오랫동안 성행하였다.¹⁹⁾ <그림 I-3>



〈그림 I-1〉 목각인형의 연지곤지
(한국인의 얼굴)



〈그림 I-2〉 일본의 문
(Ethnic Style)



〈그림 I-3〉 치 흑
(被服と化粧 社會心理學)

19) 박보영, 「한국·일본·중국 여성의 색조화장문화」,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112.

문신과 치혹은 후대에 와서도 지역에 따라 간헐적으로 유행하였으나, 신체를 채색하는 행위는 의복문화의 발달과 함께 신체가 피복 되면서 차츰 사라지게 되었고, 신체 노출 부위 중 얼굴 부분에 집중적으로 발달하게 되어 색조화장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²⁰⁾

한국·일본·중국은 고대부터 색상을 가지는 의미를 중요시하였고, 특히 고대인들은 적색(赤色)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로 인하여 적색에 대한 집착을 보여 신체채색에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후대에는 색상이 가지는 주술적·상징적 의미가 색조화장에 반영되어 한국·일본·중국에서 색조화장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진 색은 대체로 백(白), 흑(黑), 적(赤)이었다.

인도는 다양성의 나라로서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면서 융합되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인도에서 행하여지는 화장은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는데, 헤너라는 식물의 잎을 갈아서 피부를 물들였다. 헤너의 색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빨강은 불을, 오렌지는 떠오르는 태양을, 황토색은 피를, 분홍은 지구를 상징하였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기혼자임을 알리기 위해 머리를 빨강으로 물을 들였고, 신부에게는 쌀가루로 피부를 밝게 만들었고 빨간색의 헤너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물을 들였는데 그 의미는 헤너로 물을 들인 사람에게 건강과 행복을 축복해 주는 의미로 결혼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²¹⁾ 〈그림 I-4〉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눈주위를 검게 칠했는데, 이것은 악한 기운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고, 신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마를 붉게 물들이기도 하였다. 〈그림 I-5〉

20) 박보영, 앞의 논문, p.9.

21) www.hennadesign.com



〈그림 1-4〉 인도의 헤너
(Decorated Skin)



〈그림 1-5〉 인도의 눈화장
(Decorated Skin)

(2)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면적에서 세계 제2의 대륙으로 사회·문화는 '역사가 없는 대륙', '암흑 대륙' 등으로 불려왔기 때문에 대체로 오늘날까지도 미개, 야만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사회나 문화에서는 '아프리카적 개성'이라는 특수성이 있다.²²⁾

인간의 내면 속에 잠재해 있는 변신 및 장식의 욕구에는 강한 동물을 모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는데, 피부에 상처를 내어 만드는 상흔의 모델이 악어였으며 사자의 목에 난 털을 족장의 머리에 두르기도 하고 얼룩말과 같이 신체채색을 하였는데, 이는 아프리카인들의 독창성과 예술적인 재능과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으로 이어졌다.

아프리카에서의 대표적인 신체 채색의 색으로는 빨간색과 흰색을 썼는데, 빨간색은 삶과 죽음의 상징적인 색으로 인간의 피와 관련된다. 빨간색은 광

22)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아프리카.

물, 식물과 동물의 물질로부터 얻게 되는데, 아픈 사람에게 삶의 힘을 위한 치료약처럼 신체에 발라 영혼을 달래는 정신적인 색이었다. <그림 I-6>

흰색은 초자연적 현상과 연관되는 색으로 아프리카에서는 의식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그들의 조상과 사람들과의 유대를 상징하였다.

소년과 소녀가 지역 공동체에 의해 성인으로 인정되는 의식에서 흰색이 자주 사용되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발라서 병을 고치고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믿었고, 신령들과의 교감을 위해서 눈언저리 및 얼굴을 백색으로 칠하였다.²³⁾

신체에서 흰색은 다른 색과 자주 결합되는데, 흰색은 온화함, 친절을 표현하는 반면에 빨간색은 적극성을 나타내었다.

흰색 착색제로는 고령토(kaolin), 미세한 점토, 밀가루 또는 절구로 쪼은 조개에서 만들었다. <그림 I-7>



<그림 I-6> 아프리카의 빨간색 신체채색
(Decorated Skin)



<그림 I-7> 아프리카의 흰색 신체채색
(Ethnic Style)

23) Berenice Geoffroy-Schneiter, 『Ethnic Style』, Assouline, 2001, p.22.

아프리카에서는 일종의 부적으로 문신과 상흔을 했는데, 문신은 생물학적 존재에 불과한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 즉 씨족이나 부족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표시로 주술·종교적인 의례이기도 하고, 장식으로서 미학적 의미도 지녔다.

그 밖에도 계급을 나타내는 것과 액땀을 위한 것, 또 결혼이나 출산 때 호적 대신에 행하거나 성년식 때 행해지기도 했다. <그림 I-8>

또한 많은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그들의 몸에 가지각색의 패턴으로 상흔(Scar)을 함으로서 장식하였다. 상흔은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을 반영하였고, 책임을 표시함으로서 신체를 장식하였다.

아프리카인들의 삶의 각 단계에서 출생 직후에 첫 번째 상흔을 하게 되고, 일정한 간격으로 더해지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첫 번째 월경(月經), 첫 아이의 출산, 아이가 젖을 떼고 난 후에 상흔을 하였다.²⁴⁾

이 아픔의 장식은 신체 외관을 바꾸거나 성적인 매력을 과시하였고, 상흔이 없는 사람은 겁쟁이나 또는 외부 사람으로 간주되어 경멸하였다. <그림 I-9>



<그림 I-8> 아프리카의 문신
(Decorated Skin)



<그림 I-9> 아프리카의 상흔
(Ethnic Style)

24) Karl Groning, 『Decorated Skin』, Thames & Hudson, 1997, p.146.

(3) 아메리카

아메리카는 남·북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대한 총칭이며, 인종 및 어족을 기초로 북아메리카를 앵글로아메리카라고 하고, 중앙·남아메리카를 라틴아메리카라고 한다. 또한 지리적으로 북아메리카·중앙아메리카·남아메리카로 구분한다. 아메리카는 좁은 뜻으로 아메리카 합중국, 특히 알래스카·하와이를 제외한 48주(州)를 가리킨다.

아메리카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되어 복잡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나, 원래는 아시아에서 건너가 전 대륙에 분포한 아메리카 인디언과 소수의 에스키모만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으나, 아메리카 인디언은 식민 과정에서 대량으로 학살되어 지금은 보호 구역에 거주할 정도이지만 전통적인 옛 문화가 보존되고 다시 인디언의 존재가 인종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아메리카 인디언의 원시적 메이크업은 깃털이 있는 머리 장식과 더불어 전쟁에 나가기 전 얼굴과 몸에 채색제로 치장을 하였는데, 전쟁에서의 업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장식이 없는 얼굴은 불명예로 보여졌다. <그림 I-10>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색에 의미를 담아 전달하였는데, 빨간색은 전쟁의 신성한 색으로 성공과 승리를 나타내어 '레드 스킨(Red Skin)'이라 하여 인디언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졌고, 푸른색은 패배의 의미로 수치심을 나타내었고, 검정색은 죽음, 흰색은 평화와 행복을 나타내었다.²⁵⁾

얼굴과 몸에 칠해진 색과 주제의 조합은 개개인의 수호의 정신으로 간주하여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림 I-11>

25) Karl Groning, 앞의 책. p.35.



〈그림 I-10〉 아메리카의 얼굴 장식
(Decorated Skin)



〈그림 I-11〉 아메리카의 신체 채색
(Decorated Skin)

(4)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는 넓은 의미로는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 멜라네시아 · 미크로네시아 · 폴리네시아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태평양 지역의 섬을 뜻한다. 좁게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멜라네시아 · 미크로네시아 지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루어진 오세아니아는 멜라네시아인 · 미크로네시아인 · 폴리네시아인 외에 유럽인 · 중국인 · 인도인 · 일본인 등이 있고, 그 밖의 상당수의 혼혈인들이 거주하였다.

오세아니아의 다양한 인종이 있는 만큼 메이크업 역시 인종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피부색이 밝은 갈색의 인종은 문신이 발달하였고, 피부색이 흑색이나 암흑색의 인종들은 채색이나 상흔을 하였다.

신체장식의 예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야생의 이미지에서 오고, 장식에 필요한 원료가 발견되는 지역에서 행하여졌고, 머리 · 코 · 귀 · 입술 · 목 · 가슴 · 입술 · 팔과 다리 또는 그 밖의 신체에 장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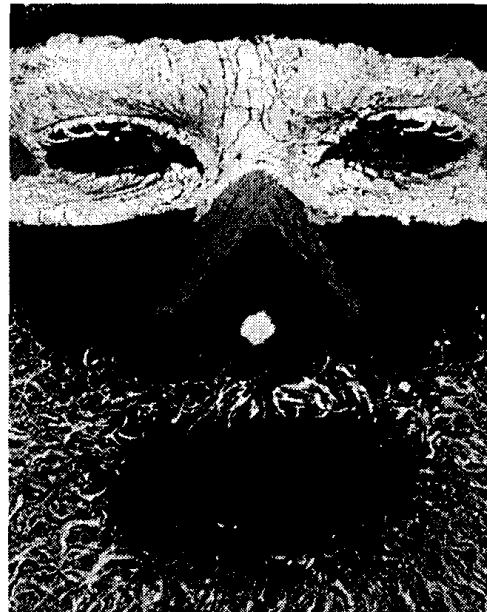
오세아니아인들은 얼굴과 피부의 채색은 성(性), 나이와 계급에 의해 결정되었고,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고 종교적 지침을 따르게 되었는데, 색깔이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정교한 장식으로 공동체 의식을 나타내었는데, 새의 깃털과 달팽이, 조개의 껍질, 색깔이 다양한 꽃, 씨앗의 껍질로 장식을 하였고, 다양한 식물과 황토로 채색을 하였다. <그림 I-12>

모든 색은 오세아니아 문화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특히 빨간색은 피의 색으로 강렬하고 불가사의한 색으로 오세아니아의 번영과 의학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얼굴의 일부를 검정색과 빨간색으로 칠함으로써 검정색은 부족의 미래의 영혼을 상징하고, 빨간색은 경제적 번영을 나타내었다. <그림 I-13>



<그림 I-12> 오세아니아의 신체 장식
(Decorated Skin)



<그림 I-13> 오세아니아의 얼굴 채색
(Decorated Skin)

채색제의 원료로는 가루 목탄을 물 또는 나무 기름에 섞어서 검은 색으로 사용하였고, 흰색은 진흙으로, 파란색·초록색·노란색은 광물과 식물의 수액으로 사용하였다.²⁶⁾

26) Karl Groning, 앞의 책, p.76.

오세아니아에서는 신체에 채색과 더불어 문신을 했었는데, 문신은 아프리카에서 행하여졌던 것과 같이 피부에 바늘로 찔러 물들이는 것인데, 씨앗을 태워서 코코넛 기름을 섞거나, 카라카란 나무 껍질을 태워서 얻어지는 그을음에 물고기 기름 등을 섞어서 안료를 사용하여 문신을 했는데, 이 문신은 소속 부족과 신분고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또한 문신은 그 문신이 지닌 자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상징이었으며 성공적인 전사일수록 그의 몸은 더 많은 문신을 했는데, 이러한 장식들이 계급의 상징물이 되었으며 지위를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²⁷⁾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문신을 하였는데, 남성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은 원래 얼굴과 몸 전체를 곡선이나 직선, 당초(唐草) 무늬²⁸⁾나 와상선(渦狀線)²⁹⁾으로 빈틈없이 한 것에 반해서 여성은 얼굴과 수족에만 행하여졌다.³⁰⁾ <그림 I -14>



<그림 I -14> 오세아니아의 문신
(Ethnic Style)

27) Elizabeth B. Hurlock, 『의복의 심리학』, 임숙자 外(譯), 서울, 교문사, 1995, p.22.

28) 당초(唐草)무늬 : 식물의 형태를 본떠서 일정한 형식으로 도안시킨 장식무늬의 일종이다.

29) 와상선(와상선) : 손가락에 나타나는 지문(지문)의 종류중 하나로 융선이 독립 또는 혼합하여 형성되고 2개 이상의 삼각도를 가진 지문을 말한다.

30) Berenice Geoffroy-Schneiter, 앞의 책, p.15.

2.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에스닉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

메이크업은 인간의 얼굴 표면 위에 예술 조형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 예술이다.³¹⁾ 조형적 요소를 형(Shape)·색채(Color)·질감(Texture)·디테일(Detail)로 나누어 1990년대 이후 지역적인 배경 또는 역사적인 상황을 기획하는 컬렉션(collection)에서 의상과 결부되어 독특하고 새로운 미를 보여준 스테이지 메이크업(Stage Make-up)³²⁾에 반영된 에스닉 스타일을 조형적 특성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형

메이크업은 그 시대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기준에 맞게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것으로 형은 얼굴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점·선·면으로 이루어지는 형을 에스닉 메이크업에서는 자유로운 형태로 표현하였다.

① 점

점은 단일 초점이 되는 경우에는 시선을 집중시키는 강조가 될 수 있지만, 다수의 점들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면 패턴이 될 수도 있다.

블랙&화이트(Black&White)로 원시적인 미(美)를 살린 에스닉 스타일의 완성을 볼 위의 블랙 색상의 점으로 표현한 <그림Ⅱ-1>은 아프리카 원시부족의 우두머리인 족장이 짐승들의 털을 쓴 듯하게 커다란 깃털을 매치 시킨 블랙의 헤어 칼라와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짙은 아이라인으로 표현된 이미지에 덧붙여진 화이트 톤의 베이스 위 양 볼의 검은 두 점이 강렬한 효과를

31) 최은지, 앞의 논문, p.44.

32) 스테이지 메이크업(Stage Make-up) : 컬렉션(Collection)에서 의상에 따라서 색과 선을 결정하고, 무대 크기와 관객과의 거리, 조명에 따른 효과도 고려해야 하는 메이크업이다.

발휘한다.

내추럴한 메이크업 위에 검은 테두리의 하얀 반점을 불규칙적으로 얼굴 전체를 덮어 강렬한 동물을 연상시킨 〈그림Ⅱ-2〉는 마치 자연발생적인 보호색을 보는 듯한 반점 효과의 이 메이크업은 에스닉 이전의 '자연으로의 회귀'라는 타이틀이 더 잘 어울릴 듯한 메이크업이다.



〈그림 Ⅱ-1〉 단일 점
(Fashion News vol. 76)



〈그림 Ⅱ-2〉 점 패턴
(Fashion News vol. 76)

② 선

메이크업에서 선을 이루는 눈썹(Eyebrow)·아이 라인(Eye Line)·립 라인(Lip Line)은 좌우 대칭·비례·균형·통일감을 고려하였으나, 에스닉 메이크업에서 이러한 선들을 파괴시키듯 강조시킴으로서 부드러움보다는 강인함을 나타내었다.

눈썹을 미간 사이로 연결시킨 과장된 붉은 선과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졌던 피어싱을 함으로서 승리감과 용감함을 표현한 〈그림Ⅱ-3〉은 유혈이 낭자했던 원시부족 국가의 걱정과 혈기가 표

현된 메이크업이다.

눈썹과 눈 사이를 버티컬 형태로 메운 가는 선이 적을 제압하는 용맹함을 지닌 전사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한 <그림Ⅱ-4>는 작열하는 태양아래 서 있는 듯한 볼부분의 새딩과 카리스마를 지닌 듯한 일정한 간격의 블랙 수직선의 메이크업 기법이 동물의 갈기 같은 형상의 헤어스타일과 잘 조화된다.



<그림Ⅱ-3> 눈썹 선 강조
(BAZAAR Korea No. 69)



<그림Ⅱ-4> 눈썹선 응용
(Gap Press Collections vol.26)

강인한 검은 눈썹과 아이 메이크업은 위협적이면서도 전위적인 <그림Ⅱ-5>는 좌우의 비대칭으로 한쪽은 아래로 갈수록 짧아지는 역삼각형태의 가로선과 한쪽은 아이홀을 각진 형태로 검게 칠한 이 메이크업은 용맹스런 남성전사들의 이미지를 구체화했다. 선의 굵기의 변화나 반복만으로도 충분히 에스닉 메이크업을 미래적인 감각으로 보여준다.

백납분을 바른 듯한 하얀 얼굴에 반달모양으로 눈두덩과 눈썹을 검게 칠해 과장되게 강조한 두꺼운 아치의 눈모양이 동양적인 <그림Ⅱ-6>은 분장한 얼굴의 색채 등으로 성격이 표현되는 중국의 경극분장과는 달리 때론 감정까지

도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고대 일본의 순종적인 여인들의 무표정을 담은 얼굴 색이 에스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림Ⅱ-5〉 비대칭 아이라인
(‘97-98 A/W Collections)



〈그림Ⅱ-6〉 동양적인 눈썹선
(VOGUE Korea No. 15)

③ 먼

메이크업에서 먼은 아이 섀도우(Eye Shadow) · 블러셔(Blusher) · 립(lip)으로 이루어지는데, 에스닉 메이크업에서는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얼굴의 채색 방법이 다양하게 응용되어서 나타난다.

아시아의 화려한 색채와 기교가 돋보이는 〈그림Ⅱ-7〉은 선을 응용한 메이크업으로, 메이크업 자체에는 다양한 색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화이트를 사용한 선만으로도 아이홀을 따라 색을 입힌 것과 입술의 라인을 그음으로서 주술적인 느낌이 드러나는 메이크업을 완성시켰다. 같은 색의 속눈썹을 붙여 눈매를 강조했고, W자 모양으로 광대뼈와 코를 따라 붉은 색의 치크를 넓게 칠해 자칫 색채에 있어 단조로워 보이는 메이크업을 생기 있게 살렸다.

오지의 아메리칸 인디언 여인을 연상시키는 〈그림Ⅱ-8〉은 토속적이며 추상

적인 형태의 원시적인 화장형태이다. 눈썹과 눈 밑을 평행하게 그은 흰색의 선과 눈 앞 머리 쪽에 그은 파란색, 이마·양 볼·턱 끝을 자연물감이나 식물추출물을 사용한 듯 자연스럽게 표현된 밝은 노란색이 순박하면서도 토속적이다. 얼굴 옆선을 따라 촘촘히 땀은 헤어스타일이 에스닉 이미지를 강조한다.



〈그림 II-7〉 아이샤도우 응용
(ELLE Korea NO. 107)



〈그림 II-8〉 블러서 응용
(VOGUE Korea No. 66)

머리 장식으로 정복자로서의 위엄이 돋보이는 에스닉 스타일의 〈그림 II-9〉는 오랜 시간 태양에 그을린 듯한 효과의 넓은 가로형의 치크와 눈 주위를 화이트로 둥글게 칠하고 입술 선을 따라 화이트 선을 그어 눈과의 조화와 치크를 더욱 붉게 보이게 하여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레드 스킨'을 연상시킨다.

아프리카 부족의 의식을 행할 때 쓰인 방법으로 메이크업을 시도한 〈그림 II-10〉은 흰색으로 턱선을 따라 칠한 마스크 형태와 이마에서 코까지 가늘게 수직으로 그은 선 또한 원시 부족 국가의 채색 방법을 응용한 메이크업이다.



〈그림Ⅱ-9〉 아메리카 인디언 이미지
(Fashion News Vol.72)



〈그림Ⅱ-10〉 아프리카 신체 채색 응용
(2002-3 F/W Collection)

전체적인 얼굴의 메이크업은 특별하지 않지만, 블러셔의 자리에 손으로 거칠게 바른 듯한 얼굴 한쪽 면의 손자국의 분장이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채색 효과를 나타낸 〈그림Ⅱ-11〉은 흰 진흙을 아무렇게나 바른 듯 한쪽 면만 칠한 이 메이크업은 원시적인 의식을 행할 때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채색해 부족 고유의 주술적인 의미를 표현해냈다.

얼굴을 이등분하듯 눈 밑을 직사각형태로 메이크업 한 〈그림Ⅱ-12〉는 아이 마스크를 쓴 듯한 눈가의 화이트 페인팅은 동물을 사냥하거나 의식을 치를 때 사용한 원시적인 분장형태로 동물처럼 분한 헤드밴드가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원시적인 생활을 잘 반영한다.



〈그림Ⅱ-11〉 아메리카 인디언 채색 응용
(Gap Press Collections Vol. 26)



〈그림Ⅱ-12〉 아메리카 인디언 M/U응용
(2002-3 F/W Collections)

(2) 색채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은 의상과 헤어 등 전체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사용하는데, 어떤 색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스닉 메이크업에서는 각 나라마다 나타나는 색을 사용함으로써 얼굴의 일부를 과장되게 하거나 축소시켜 표현하기도 하고, 극도의 색상을 제한하는 등 강한 이미지의 메이크업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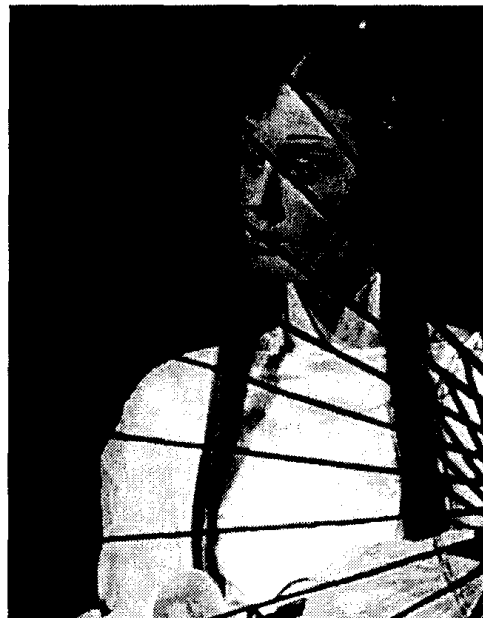
블랙&화이트로 두 가지 색만을 사용한 〈그림Ⅱ-13〉은 메이크업이 기원전 악령을 물리치는 주술적인 의미에서 눈화장이 비릇되었듯이 대담하고 적대적이다. 희게 표현한 피부에 눈의 테두리를 따라 두껍고 검게 칠해 아이메이크업을 강조하여 동양적인 분위기가 나타난다.

아시아 중에서도 일본의 화장을 한 여성의 모습을 한 〈그림Ⅱ-14〉는 창백한 흰 피부에 넓은 눈두덩을 나타내기 위해 눈썹을 임의로 높은 위치해 그렸고, 아이라

인은 눈 길이보다 가늘게 그렸고, 치크와 입술은 밝은 분홍빛으로 수줍은 여인을 그려냈다. 흰 피부와 짧은 화살형의 검은 눈썹이 동양적이고 검은 머리와 실크의상이 에스닉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림 II-13〉 흰색과 검은색을 응용한 메이크업
(Gap Press Collections Vol.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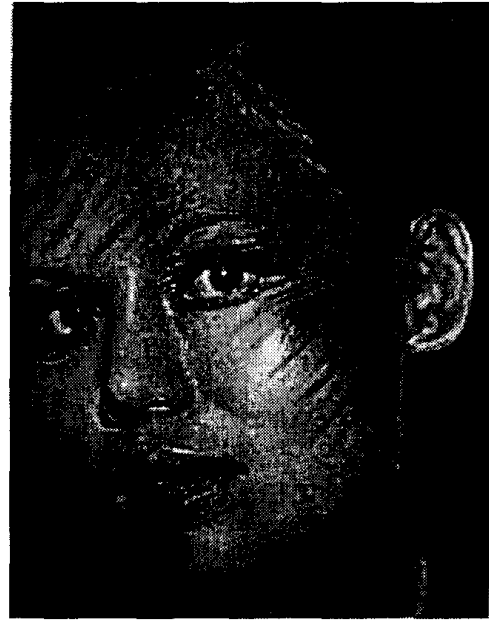
〈그림 II-14〉 동양풍 이미지가 강한 메이크업
(ELLE Korea No.107)

폴드칼라로 피부색을 표현해 신비로운 이집트 여인을 표현한 〈그림 II-15〉는 클레오파트라로 대표되는 검은 단발머리와 길게 뻗은 아이라인은 피라미드 속 벽화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재현한 듯 하다. 같은 색조의 의상과 장신구들이 잉카문명의 정교하고 화려했던 시대를 반영한다.

이마에서 볼 쪽으로 거칠게 퍼 발라 불을 뿜은 듯한 강렬한 오렌지칼라가 마치 태양 빛을 뒤집어 쓴 듯 한 〈그림 II-16〉은 빛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피부색과 그라데이션하지 않고 가는 붓으로 선을 살렸다. 아이라인은 짙게 그리고 역시 거친 터치로 선을 살려 표현했는데, 인도의 여인들이 신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마를 붉게 물들였던 것과 같은 메이크업을 보여준다.



〈그림 II-15〉 골드칼라의 화려한 이미지
(97-98 A/W Collections)



〈그림 II-16〉 빨간색의 강렬한 이미지
(VOGUE Korea No.66)

(3) 질감

원시시대에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채색제로 얼굴과 몸에 채색을 하였지만, 현대에는 다양한 메이크업 재료의 발달로 인해 색도 다양해지고 질감 표현도 다양해 졌다.

메이크업에서 사용되는 질감의 표현은 광택이 나지 않는 느낌의 매트(matt)·번들거리는 효과의 글로시(glossy)·반짝이는 입자가 고운 펄(pearl)과 입자가 굵은 글리터(glitter)·인조보석이 있다.

에스닉 메이크업에서는 이러한 입체감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내어 강조되어 보이게 하고 있다.

창백한 화이트톤의 피부표현과 입술 중앙에 살짝 칠한 붉은 색의 과장된 작은 입술이 전형적인 동양의 에스닉한 메이크업을 나타낸 〈그림II-17〉은 매트한 질감으로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붉은 색으로 포인트를 잡아 단아한 동양의 에스닉 메이크업을 완성하였다.

금색 펄 한가지 색으로 얼굴 전체를 펄 발랐지만, 펄의 반짝이는 효과로 이마·콧등·턱·광대뼈 부분이 튀어나와 입체감이 있어 보이는 <그림Ⅱ-18>은 헤어 장식과 더불어 건강하고 용감한 원시부족의 느낌이 나타난다.



<그림 Ⅱ-17> 매트
(97-98 A/W Collection)



<그림 Ⅱ-18> 글로시
(Book No.53)

인도 문화를 잘 드러내 듯 표현한 <그림Ⅱ-19>는 이마의 장식은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듯한 형상의 주술적인 이미지를 띤다. 금색의 파라핀으로 지평선 느낌의 세 개의 선을 만들고 그 위에 붉은 색의 점을 찍어 태양을 나타냈다. 땀은 머리와 악세사리들이 인도풍의 에스닉 이미지를 그려냈다.

골드컬러의 메탈리프로 얼굴을 화려하게 장식한 <그림Ⅱ-20>은 원시시대에서는 자연에서 추출한 재료로 발랐을 자리에 반짝이는 메탈리프를 사용해 눈썹선을 따라 붙이고 얼굴 중앙을 가로지르고 턱과 볼을 장식해 예전의 에스닉 이미지를 응용해 화려하고 미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림 II-19〉 펄
(VOGUE Ztalia No.589)



〈그림 II-20〉 메탈리프
(VOGUE Korea No.68)

셀로판지를 이용해 눈썹선을 따라 붙여 독특한 메이크업을 완성시킨 〈그림 II-21〉은 소재 특유의 반짝임과 반사되는 특징을 살려 사각형의 셀로판지를 모자이크하듯 잘라 붙였다. 코끼리의 뼈를 악세서리로 장식해 에스닉 분위기를 표현했다.



〈그림 II-21〉 비닐을 사용한 독특한 질감
(BAZAAR Italia No.225)

(4) 디테일

일반적인 뷰티 메이크업(Beauty Make-up)에서는 직물과 같은 패턴이나 입체적인 장식을 하는 것은 시도되지 않았지만, 에스닉 메이크업에서는 직물에 프린트하듯 패턴을 피부 위에 프린트하거나, 17세기의 패취(patch)처럼 종이·비닐·직물 조각·보석을 붙이거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행했던 피어싱 등 실험적인 방법을 사용해 예술성이 있는 첨단 메이크업으로 작가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아트 메이크업(Art Make-up)으로 예술 표현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헤어 장식과 얼굴에 붙인 따뜻한 금색의 동전 모양의 장식이 포인트로 아프리카 여인의 화려한 에스닉 메이크업을 완성한 <그림Ⅱ-22>는 이마와 눈 주위에 금색의 동그란 모양을 붙여 나름대로 추상적인 선을 만들었다. 주술적 의미와 미적 문화가 믹스&매치 되어 화려한 악세서리로 거듭났다.

인위적으로 얼굴을 흰색으로 바르고 양 볼에 붉고 푸른색의 서클 형태의 피스를 붙여 신비로움을 나타낸 <그림Ⅱ-23>은 동양적인 에스닉 무늬의 한국의 연지를 연상시키는 메이크업이다.



<그림 Ⅱ-22> 패치의 응용
(BAZAAR Korea No.61)



<그림 Ⅱ-23> 연지의 응용
(Fashion News Vol.76)

용이 튀어나올 것 같은 화려한 원색 비단의 중국풍의 의상에 블랙의 긴 머리와 동양적인 메이크업으로 오리엔탈리즘을 느낄 수 있는 <그림 II-24>는 화이트베이스에 오리엔탈 특유의 붉은 입술을 표현하기 위해 붉은 색상의 테이프로 연출했다.

이마와 콧날을 T자형의 보라색 피스로 가리고 눈물 형태의 붉은 색 피스를 눈 밑에 붙이고 턱에도 은색의 장식을 한 <그림 II-25>는 얼굴에 채색을 했던 것을 피스로 응용한 메이크업이다.



<그림 II-24> 립스틱을 종이로 응용
(BAZAAR Korea No.50)



<그림 II-25> 채색의 효과를 종이로 응용
(BAZAAR Korea No.50)

창살 모양 형태의 눈썹을 연결시켜서 그려 강인함을 표현했고 마치 계급을 나타내는 듯한 마름모 형태의 골드 장식을 미간 중앙에 정교하게 조각하여 붙였고 계급의 상징물의 형태로든 미적 도구의 형태로든 에스닉 효과로 화려함을 표현한 <그림 II-26>은 귀를 각각 붉은 색과 푸른 색으로 칠해 신비로움을 더했다.

신분 계급을 상징하는 듯한 가늘고 긴 깃털을 붉은 색으로 염색해 눈썹 선을 따라 붙이고 미간 사이에 에스닉한 문양을 그려 넣은 <그림 II-27>은 토속

적이고 자연적이면서 동시에 권위적이다. 붉은 색의 헤드장식이 눈썹에 붙인 깃털 피스와 잘 조화되어 아프리카 대륙의 화려함과 정열이 잘 묘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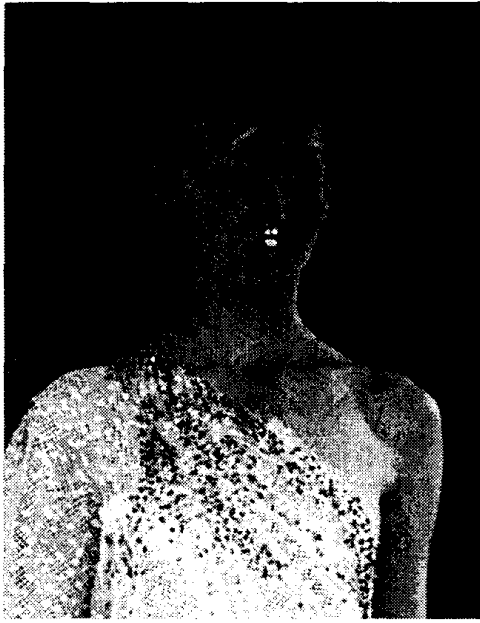
〈그림 II-26〉 눈썹 응용 I
(2002-3 F/W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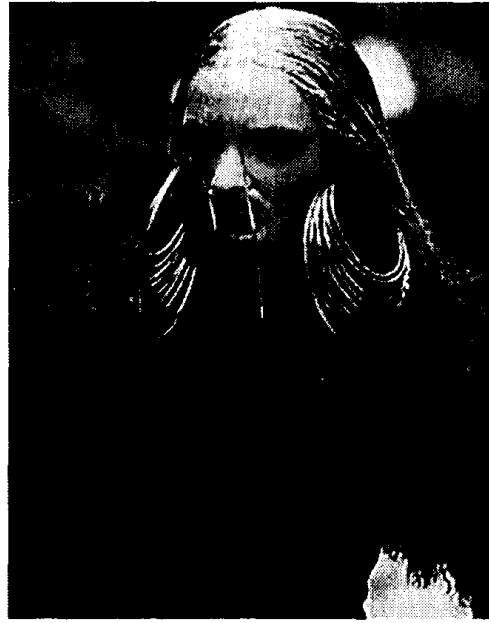
〈그림 II-27〉 눈썹 응용 II
(2002-3 F/W Collection)

원시 부족에서 종교 의식과 미적 표현인 장식적인 의미로 행해졌던 코의 피어싱과 타투를 한 것 같은 메탈블루 색상의 추상적 문양을 턱에 붙여 원시적이지만 미래적인 느낌이 가미된 형태의 〈그림II-28〉은 피어싱은 미학적으로 효과를 발휘했다기보다 자신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지위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의 이 피어싱은 차가운 금속성의 여러 크기의 링을 겹쳐놓은 과장되게 큰 이어링과 입술을 꿰뚫은 길다란 피어싱으로 미적 형태라기보다 적을 제압하는 전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림II-29〉는 자신을 위협적으로 드러내 적을 물리치려는 용맹함과 투지가 담겨져 있는 메이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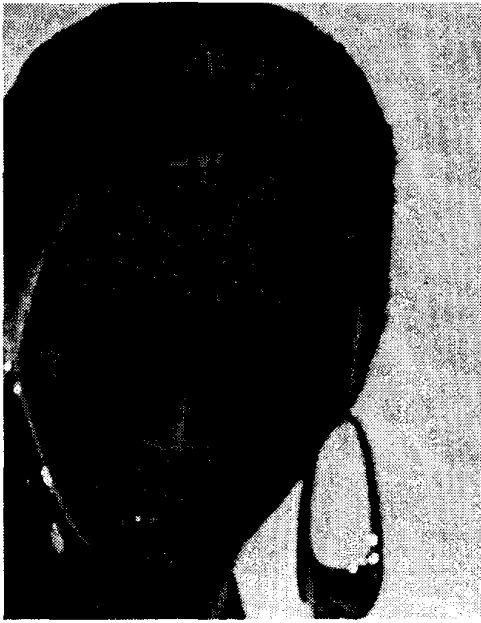
〈그림 II-28〉 피어싱 응용
(Gap Press Collections Vol.26)



〈그림 II-29〉 피어싱과 타투 응용
(Gap Press Collections Vol.28)

위협적인 문신을 한 듯 강인함을 나타내는 에스닉 메이크업인 〈그림 II-30〉은 전체적 분위기는 가면을 쓴 듯하고 문양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는 기하학적인 문양의 부드러운 선들은 오세아니아의 여성들이 얼굴에 문신을 한 것과 같은데, 검은 색을 써서 여성의 화려함보다는 무사의 강인함을 표현했다.

인체 해부도를 보는 듯한 전위적인 바디 페인팅을 시도한 〈그림 II-31〉은 해골 모양의 악세사리와 함께 인체의 골격을 모티프로 하여 흰 색으로 페인팅을 했다. 뼈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해 마치 X-Ray사진을 보는 듯 하는데,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행해졌던 흰색을 몸에 발라 병을 고치고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믿었던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



〈그림 II-30〉 타투 응용
(Book No. 41)



〈그림 II-31〉 신체 채색 응용 I
(BAZAAR Korea No.50)

마치 피라미드의 스팅크스를 연상시키는 차분한 골드 빛의 페인팅이 얼굴에서 몸까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에스닉 스타일을 살린 〈그림II-32〉는 얼굴 옆 모습의 윤곽을 따라 단층으로 분리된 계단형의 메이크업에 유선과 나선형의 곡선을 가미해 단조로움을 보완했다. 이집트어로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의 스팅크스를 바디 페인팅으로 잘 살려냈다.

얼굴과 몸에 흰 진흙으로 다양한 문양을 그려 넣은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의 원주민의 화장형태는 사냥이나 전장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일차적 차원의 메이크업의 의미를 지닌다. 〈그림II-33〉은 나무·돌·동물을 모티프로 해서 그려 넣은 그 당시의 신체 채색은 생존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뭉쳐서 땀은 헤어스타일과 동물의 뼈로 만든 장신구와 함께 다리와 팔에 기하학적인 문양을 그려 넣어 광활한 아프리카대륙의 자연성을 표현했다.



〈그림 II-32〉 신체 채색 응용 II
(BAZAAR Italia No.225)



〈그림 II-33〉 신체 채색 응용 III
(Book No.41)

이집트의 태양과 사막의 마른 식물들을 연상시키는 〈그림II-34〉는 문양을 골드, 카키, 레드컬러를 주조로 이미지를 그려냈다. 팔과 다리에 페인팅해 태양을 숭배하던 고대 이집트의 민족성을 표현했고 태양의 레드, 사막의 골드, 식물의 카키색으로 지역적 특성을 그려냈다.

일본에서 행해졌던 문신은 최초의 치장 수단이었는데, 어로 생활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II-35〉는 이러한 문신을 응용해 동양의 칠기나 화려한 의상에 쓰이는 자수모양을 얼굴과 몸에 감각적으로 그려 넣었다. 검정색 바탕에 물고기와 꽃, 식물 등 자연의 형태를 아름다운 색채로 몸에 새기듯이 정교하게 페인팅했다. 붉고 푸른색의 동양적인 색감과 디테일한 세부묘사가 선 중심의 미적 감각을 잘 나타낸다.



〈그림 Ⅱ-34〉 신체 채색 응용 IV
(VOGUE Korea No.69)



〈그림 Ⅱ-35〉 현대적인 문신
(Book No.50)

IV. 에스닉 스타일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 제작

1. 제작 의도

오늘날 사회가 다양화·전문화·산업화됨에 따라 최첨단의 모험성이 강조되는 경향과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향수를 자극하는 복고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문화예술 분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반영하여 인위적이고 구조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것에 기본을 둔 에스닉 스타일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에스닉 스타일을 응용하여 아트 메이크업(Art Make-up) 형태로 작품을 전개하였다.

아트 메이크업은 인체에 행해지는 메이크업으로 색·표현·주제·기법·재료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단지 예술적 이미지만을 중시하여 인간의 육체를 재조형한 예술로서 새로운 현상, 새로움의 추구, 새로운 현실성 등을 알리는 것으로 인체에 디자인 한 것이다.³³⁾

본 논문에서 에스닉 스타일을 응용해 아트 메이크업으로 표현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각 대륙의 민족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신체를 장식하였는데, 민속적이고 토속적인 아름다움으로 전승되어온 민속 화장을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감각으로 원형을 최대한 표현하되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메이크업이 기능적 단계에서 예술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의도에서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33) 김영경, 「이집트 장식문양을 응용한 현대 아트 메이크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p.28.

2. 제작 방법

작품제작에 있어서 대륙별로 나타나는 신체 채색·문신·상흔을 현대적 아트 메이크업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뷰티 메이크업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메이크업 재료와 여러 가지 오브제를 사용하여 5개의 작품을 사진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I은 아시아 중 인도에서 행하여졌던 헤너라는 식물로 피부를 물들인 것을 응용하여 인도의 대표적인 색인 빨강·오렌지·노랑으로 그라데이션 시켜 제작하였다.

작품 II는 아시아 중 일본의 대표적인 메이크업으로 오늘날까지 알려진 흰색과 빨간색을 기본으로 하고 얼굴 한쪽은 뷰티 메이크업으로 시술하였고 얼굴의 다른 한쪽은 입체감을 주기 위하여 종이로 여러 가지 색을 붙여서 제작하였다.

작품 III은 오세아니아에서 널리 행하여졌던 문신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인조 보석으로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들어 얼굴에 시술된 색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같은 색으로 얼굴과 몸에 붙여 제작하였다.

작품 IV는 얼굴과 몸에 칠해진 색을 수호의 정신으로 여겨 매우 중요시하였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행하였던 신체 채색을 스탬프의 방법을 응용하여 메이크업의 유성 재료로 찍어서 채색이 되도록 제작하였다.

작품 V는 아프리카에서 장식의 의미로 몸에 흉터를 만들었던 상흔을 얼굴과 몸에 검정색으로 베이스를 깔 다음 여러 가지 곡물로 무늬를 만들어 붙임으로서 입체감이 있어 보이게 제작하였다.

이상의 작품은 뷰티 메이크업에 이미지 위주로 아트 메이크업한 작품으로서 예술적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게 예술의 한 장르로 개발시키고자 한다.

3. 작품 및 해설

(1) 작품 I

① 소 재 : 메이크업 제품(필 파우더)

② 색 상 : 빨강, 오렌지, 노랑

③ 작품의 모티브 : 인도의 헤나

헤나의 색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빨강은 불을,
오렌지는 떠오르는 태양을, 노랑은 지구를 상징하였
다.

④ 작품 해설 : 인도의 메이크업에서 색상이 가지는 의미를 잘 나타내기
위하여 얼굴에는 기본적인 뷰티 메이크업으로 샤도우·치
크·입술을 빨강에서 오렌지, 노랑으로 그라데이션하고,
이마와 어깨에 불과 태양을 상징하는 색으로 얇게 펴 발
라 자연스러움을 살린 다음 필 파우더를 사용하여 번들거
리는 효과가 나도록 하였다.



〈그림 Ⅲ-1〉 작품 1의 사진

(2) 작품 II

① 소 재 : 메이크업 제품, 색종이

② 색 상 : 흰색, 검정, 빨강

③ 작품의 모티브 : 일본의 메이크업

붉은 색은 주술과 장식적인 목적으로 주로 행하여 졌는데, 태양의 색, 피의 색, 신성한 색으로 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었고, 흰색과 검정색은 미의 상징적인 색으로 오늘날까지 메이크업에서 선호하는 색이다.

④ 작품 해설 : 얼굴을 양쪽으로 나누어 다르게 표현하였는데, 한쪽은 일본의 분위기를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서 얼굴의 베이스를 흰색으로 펴 바르고 눈썹은 검정색으로 짧은 직선형으로 그렸다. 샤도우는 눈썹과 입술을 강조하기 위해 생략하였으며 아이라인은 눈 길이 보다 길게 앞머리와 꼬리를 빼서 그리고 치크는 붉은 색으로 진하게 넣었으며 입술도 붉은 색으로 작게 그렸다. 다른 한쪽은 얼굴의 윤곽을 표현해주는 하이라이트(High-light)와 셰딩(Shading)을 색종이로 겹쳐 붙이고 같은 방법으로 눈썹과 입술, 치크도 표현하였다.



〈그림 Ⅲ-2〉 작품 1의 사진

(3) 작품 III

- ① 소 재 : 메이크업 제품, 인조 보석
- ② 색 상 : 은색(Silver), 금색(Gold), 자주색, 보라색
- ③ 작품의 모티브 : 오세아니아의 문신

문신은 피부에 기름을 섞은 여러 가지 자연 재료를 바늘로 찍어 지워지지 않게 무늬를 새기는 것으로 소속 부족과 신분을 구별할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

- ④ 작품 해설 : 피부톤에 맞게 베이스를 깔고 하이라이트와 셰딩을 한 다음, 파우더를 바르고 눈썹은 상승형으로 그렸다. 샤도우는 아이홀 기법으로 홀 위쪽은 자주색으로 그라데이션 시키고 홀 아래쪽은 은색으로 발랐으며 눈을 강조하기 위하여 언더라인을 넓게 잡고 눈 앞머리도 앞으로 빼주었다. 치크는 보라색 으로 입술을 향하게 펴 발라 주었고 입술은 샤도우 색과 맞추기 위하여 자주색으로 발랐다. 얼굴과 몸에 인조 보석으로 붙여 반짝이는 효과로 문신이 현대적인 장식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은색과 자주색으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 나도록 붙였다.



〈그림 Ⅲ-3〉 작품 Ⅲ의 사진

(4) 작품 IV

① 소 재 : 메이크업 제품(유성)

② 색 상 : 흰색, 검정색

③ 작품의 모티브 : 아메리카의 신체 채색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전장에 나가기 전 전쟁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굴과 몸에 치장을 하였는데, 검정색은 죽음을 흰색은 평화와 행복을 나타내었다.

④ 작품 해설 : 얼굴의 베이스는 피부톤과 같은 색으로 바르고 눈썹과 아이라인은 강인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검정색으로 화살이 날아가는 듯한 모양으로 그리고, 입술은 검정색으로 라인만 강조하였다. 이 위에 흰색과 검정색의 유성재료로 고대에 쓰였던 찍어서 채색을 하는 방법으로 스탬프 기법을 응용하여 흰색과 검정색이 섞여지면서 그라데이션 되는 효과를 만들었다.



〈그림 Ⅲ-4〉 작품 IV의 사진

(5) 작품 V

- ① 소 재 : 메이크업 제품, 곡물
- ② 색 상 : 검정, 곡물의 다양한 자연적인 색
- ③ 작품의 모티브 : 아프리카의 상흔

상흔은 피부에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어 흉터를 만드는 것으로 사회에서 역할을 나타내고 책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신체를 장식하였다.

- ④ 작품 해설 : 얼굴과 몸을 검정색으로 피부색이 나타나지 않게 두껍게 바르고 상흔의 느낌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입체감이 있고 자연적인 재료로 곡물을 선택하였다. 여러 가지 색깔의 콩과 조, 팥, 쌀, 보리로 크기와 색깔의 다양함으로 베이스로 깐 검정색이 밋밋해 보이지 않게 함으로서 상흔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얼굴에서 목, 어깨로 연결하여 곡선의 형태로 연결하였다.



〈그림 Ⅲ-5〉 작품 V의 사진

V. 결 론

본 논문은 주요 패션 경향의 하나인 에스닉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연구 분석하고, 본인의 작품으로 에스닉 스타일을 응용하여 아트 메이크업으로 제작하였다.

메이크업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가지 방법으로 사회환경과 생활양식 이외에도 미의 개념, 종교적 이념에 따라 메이크업의 형태가 결정되는데, 대륙별로 나타난 메이크업의 형태를 연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아시아 중 한국·일본·중국의 화장의 유형에는 주술과 장식적인 목적으로 가면이나 얼굴에 채색을 하였는데 붉은 색을 사용하여 얼굴을 위장하였고, 신체 채색이 지워진다는 단점이 있어 피부에 바늘로 찔러 색을 입히는 문신이 행하여졌으며, 문신과 더불어 치아를 검게 물들이는 치흑이 성행하였다. 특히, 인도는 화장이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붉은 색의 헤너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물을 들였고 눈 주위를 검게 칠하였고 이마를 붉게 물들였다.

둘째, 아프리카에서는 자연에서 채취한 재료로 흰색과 붉은 색으로 신체 채색을 하였고, 일종의 부적으로 얼굴과 몸에 문신과 상흔을 함으로서 강한 동물을 모방하고자 하였다.

셋째, 아메리카에서는 인디언들의 신체 채색이 대표적인데 칠해진 색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시하여 얼굴과 몸에 성공과 승리의 색으로 붉은 색이 채색되었다.

넷째, 오세아니아에서는 피부색이 밝은 갈색의 인종은 얼굴과 몸 전체를 문신하였고 피부색이 흑색이나 암흑색의 인종들은 빨간색이나 검정색으로 신

체를 채색하거나 상흔을 하였다.

현대 메이크업에서는 이러한 메이크업에서 영감을 얻어 에스닉 스타일이 나타나는데, 에스닉 스타일은 세계 여러 나라 민속 의상과 민속 고유의 염색·직물·자수·악세서리 등에서 영감을 얻어 종교적 의미가 가미된 것으로, 인위적이며 구조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것에 기본을 둔 원시성의 추구에 대한 향수라고 할 수 있다.

현대 메이크업에서는 에스닉 스타일을 독창적 표현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는데, 이를 조형적 특성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목구비를 살린 전형적인 스타일의 통일적 형식을 파괴한 형으로 과장·축소·생략 또는 대칭·균형의 파괴 등의 방법으로 독특한 ‘형’의미를 살린 메이크업이었다.

둘째, 주술적인 목적으로 신체 채색의 색으로 많이 쓰인 흰색·빨강·검정색상을 사용하여 원시적인 ‘색채’ 표현을 보여주었다.

셋째, 펄·글로tm·글리터 등 광택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화려하고 비일상적인 과장된 ‘질감’을 강조하였다.

넷째, 신체 채색·문신·상흔을 응용한 독특한 패턴의 프린트·피어싱·패취 등 다양하고 기발한 방법의 ‘디테일’을 사용한 메이크업 등이었다.

이렇게 표현된 에스닉 메이크업은 세계 다양한 민속적 취향을 받아들여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감각으로 창조되는 것이다.

에스닉 스타일이 주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표현력과 독특한 조형미는 예술적 이미지 디자인의 모티브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에스닉 스타일을 응용하여 아트 메이크업으로 작품을 전개시킴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에스닉 메이크업은 독특한 색감과 조형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변형·

응용하여 색이나 표현·주제·기법·재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예술적 이미지를 위한 아트 메이크업의 특성이 표출되었다.

둘째, 본 연구 작품에서는 뷰티 메이크업을 베이스로 하고 오브제를 사용하여 아트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는데, 좀 더 다양한 메이크업 테크닉과 자연 소재를 같이 사용한다면 더욱 더 다채로운 작품이 나올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 작품에서는 얼굴에서 가슴 위까지만 작업하였는데, 채색·문신·상흔이 신체 장식에 행해진 것이므로 신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바디 페인팅으로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메이크업이 외적 표현의 부수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에서 벗어나 하나의 예술적 이미지로 확대되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끊임없는 변화와 창조성을 갖는 데서 메이크업의 예술 창작의 의미를 찾는다고 볼 때 창조적인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형식이나 개념에 얽매임 없이 개방적인 태도와 창조적인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도 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을 배출하고 하나의 예술 장르로서 발전되기를 바란다.

參 考 文 獻

국내문헌

<단행본>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인의 얼굴, 도서출판 신유, 1994
- 강경화, 현대 메이크업 총론, APC, 2000
- 김영자, 복식미학의 이해, 경춘사, 1998
- 김희숙, 한국과 서양의 화장문화사, 청구문화사, 2000
- 김효정, MAKE-UP, 학연사, 2001
- 라사라 교육개발원, 복식사전, 라사라, 1992
- 라사라 교육개발원, 세계 각국의 민속의상, (주)라사라패션정보, 2000
- 이정호, 포스트모던 문화읽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정혜경 · 박영희 공저, 패션의 이해,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1
-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경춘사, 1995
- 한명숙, 마뛰아쥬 예술, 청구문화사, 1999
- 제임스 스노우던, 유태순 역, 유럽의 민속의상, 경춘사, 1988
- David Bond, 정현숙 역, 20세기 패션, 경춘사, 2000

<논문>

- 권기영, 현대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Asian Ethnic Fashion,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영경, 이집트 장식문양을 응용한 현대 아트 메이크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김은영,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적 특성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현미,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성향숙,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송명진,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이정아, 현대 여성복식에 표현된 Ethnic풍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윤희정, 20세기 의상디자인에 나타난 민속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장미숙,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전영주,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인도 민속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최은지, 아방가르드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정기간행물>

- BAZAAR Korea, No.50, 61, 69
- ELLE Korea, No.88, 107
- VOGUE Korea, No.15. 68, 69, 71
- 두산세계 대백과 EnCyber
- www.hennadesign.com

외국문헌

<단행본>

- Berenice Geoffroy-Schneiter, ETHNIC STYLE, Assouline, 2001
- Karl Groning, BODY DECORATION, The Vendome Press, 1998
- Karl Groning, DECORATED SKIN, Thames & Hudson, 1997
- Finkelstein Joanne, THE FASHIONED SELF, Temple University Press, 1985.
- Marily J.Horn, Lois M.Guel, THE SECOND SKIN, Houghton Milfflin Company, 1981.
- Mevyn Aucoin, THE ART MAKE-UP, Haper Colins Publishers, 1994.
- Prudence Glynn, IN FASHION, George Allen & Unwin, 1987.
- 大坊郁夫, 神山進, 「被服と化粧社會心理學」, 京都北大路書房, 1996

<정기간행물>

- BAZAAR, Italia, No,225.
- BOOK, Italia, No,41, 50, 53
- COLLECTIONS, Japan, Vol.31, 32
- FASHION NEWS, Japan, Vol,72, 76
- GAP PRESS COLLECTIONS, Japan, Vol,26, 28

ABSTRACT

Study on the ethnic style applied art make-up work.

Kim, Seong Hee
Major in Make-up Art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In the thesis, art make-up, which, as a way of ethnic and artistic expression of an image, reflects the esthetic reality of the contemporary under direct influence of natural and social environmental interaction of the contemporary, was looked into, on the foundation of the analysis of regional characteristic and formative characteristic reflected in art make-up.

From the investigation of the regional characteristic of esthetic make-up, the findings have been as follows:

Most of social communities which have common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have their identities and ways of expressing them, so that many continental peoples had their way of decorating things and pursuit for a change.

The expression of ethnic beauty was tried to express the nostalgia toward aboriginality and it began to surface as a subject matter of modern passion, which was to reevaluate another culture and reflection

of some change in their sense of values..

In general, the beauty make-up has been about making faces look beautiful, from the contemporary point of view. But these days, the ethnic make-up reflected in modern fashion tries original artistic expression in its own way.

The analysis from formative point of view is that various ethnic tastes were mellowed into so that the archetype developed into various formative beauties.

And with the use of its primitive color, the sense of modernity was also emphasized, and the application of ethnic pattern presents new feelings.

The art make-up was built on the basis of free imagination and expression of ethnic style and unique formative beauty can serve as a motive for artistic image design.

The observation of art make-up work built on the application of ethnic style convinced that open and creative mind which is not restricted by general formality and concept will expand its scope into an artistic image out of supplementary tool of make-up expression.